



지난 5일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 개막식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규 부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'복 터트리기'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.

## 그곳엔 온통 '행福'으로 가득했었네...



부안을 서부터미널 메인무대에서 펼쳐진 댄스공연.

‘어 화세상 벗넙네야, 복받으러 마실가세!’를 슬로건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삼황리에 막을 내렸다. 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,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5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축제장 곳곳에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국 대표축제 도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. 이에 본보는 첫날인 5일부터 마지막날인 7일까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 부안오복마실축제의 현장 속으로 다시한번 들어가봤다.



축제 현장을 방문한 주한 외국인들.



/사진=부안군청 제공 /정리: 부안=이옥수 기자



축제 첫날에 진행된 '복 받는 날 퍼레이드'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.

메인무대에서 펼쳐진 태권도 격파 시범.



축제 첫날에 진행된 '복 받는 날 퍼레이드'.



축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 관광객들.